



동양선교교회 김지훈 담임목사 취임예배에서 송정명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기도” 받기 위해 “무릎 꿇은”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엄숙한 기도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도회를 열고 목회자들로부터 뜨거운 기도를 받았다.

지난 12일 NBC뉴스와 폭스뉴스 등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북음주의 목회자들과 크리스찬 기업을 등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기도회는 격식을 갖추지 않은 채 진행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한 조니 무어 전 리버티대학 부총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통해 백악관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세계 북음주의 리더들과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통령 및 부통령과 기도하다니 무척 영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어 전 부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깨에 목회자들이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 사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릎을 꿇고, 목회자들은 모두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엄숙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 사진에서는 확실한 크리스천인 마이크 펜스 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백악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가진 기도회에서 무릎을 꿇은 채 목회자들로부터 뜨거운 기도를 받고 있다. ©조니 무어 목사 트위터

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진지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잭 그레이엄 목사는 13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목회자들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장현민 기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꿈 꾸자” 동양선교교회 김지훈 담임목사 취임

동양선교교회 6대 담임목사에 김지훈 목사가 취임했다. 7월 16일 오후 4시 취임예배에서 김지훈 목사는 교회가 속한 세계복음선교연합회(WEMA)의 총회장 남종성 목사 앞에서 담임목사의 직무에 관해 서약하고 임시대회를 맡고 있던 박영진 목사로부터 치리권을 부여받았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 지난 47년 동안 동양선교교회를 통해 큰 사명을 감당케 해 주셨다”면서 “비록 최근 몇 년간 분쟁으로 교회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이 지난 47년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뒤엎을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꿈을 이곳 동양선교교회에서 꿀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올해 39세인 김 목사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문화심리학과

를 졸업한 후 소명을 받아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목회학을 공부했다. 이후 덴버의 일리프 신학교를 거쳐 현재는 클레어몬트신학교에서 영적 돌봄과 상담을 주제로 Ph.D. 과정에 있다.

높은뜻정의교회 전도사와 부목사를 거쳐 킹스웨이교회 협동목사로 시무했으며 2016년 9월부터 동양선교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겨왔다.

1970년 고 임동선 목사가 개척한 이 교회는 LA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대형교회로 성장했다. 이후 이병희 목사, 박광철 목사, 강준민



김지훈 목사

목사, 박형은 목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때론 성장, 발전하고 때론 갈등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여전히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한인타운의 상징적 교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날 설교는 이 교회 부목사 출신이면서 제4대 담임목사로 결정됐지만, 본인이 고사했던 송정명 목사(미주평안교회 원로, 워싱턴대학교 총장)가 전했다. 그는 “인정받는 일꾼(딤후2:15)”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닌 기도의 무릎으로 목회해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클레어몬트신학교의 제프리 관 총장, 높은뜻정의교회의 오대식 목사, 주님세운교회의 박성규 목사, 클레어몬트신학교의 이경식 교수가 격려사와 축사를 전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이상명 총장이 축도했다.

김준형 기자

베델한인교회 시원한 신학강좌 연다

베델한인교회가 ‘한여름밤의 시원한 신학강좌’를 평신도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평신도들이 그동안 어렵게만 생각했던 신학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며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고자 7월 28일(금)부터 30일(주일)까지 이 행사를 연다. 강사는 박응규 교수(교회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오태균 교수(교육상담학,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원

교수(변증학,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등이며 7월 28일(금) 오후 7시 종교개혁의 기원과 배경,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녀 양육 I, 29일(토) 오전 6시 종말론과 이신칭의: 성부, 종교개혁의 영향과 의미, 29일(토) 오후 7시 종말론과 이신칭의: 성자,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30일(주일) 오후 3시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녀 양육 II 등의 강의가 있고 패널토의는 김한요 담임목사가 사회를 맡는다. 문의) 949-854-4010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ASE CERTIFIED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건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323.734.4881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웍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스장 의사
 FERRARA & LEE'S MORTUARY
LEE'S FUNERARIO
 Un Mortuario Colonial De Empresas Ferrara

- 왜 리스장 의사 일까요?
 ■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리스장 의사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장례는 현실입니다
 ■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 최소 10% 이상 더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 타 장의사의 채플비용을 절약하시면서 고인과 지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24시간 한국어 문의
(714) 469-1040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채플을 보유한 오렌지카운티 유일의 한인장 의사
리스장 의사
 Lee's Mortuary FD1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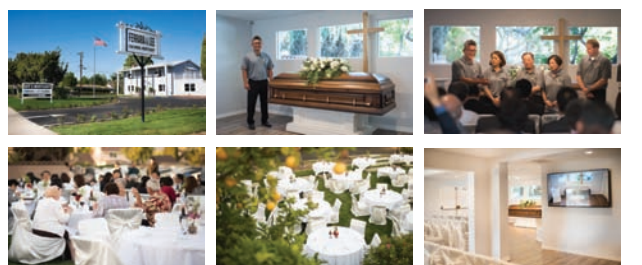
Since 1966

채플을 보유한 오렌지카운티 유일의 한인장 의사 리스장 의사 더 가까이에서, 더 편안하게 모십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1966년부터 고객들을 모셔온 리스장 의사 1000대 동시 주차가 가능한 넓은 파킹장과 리뉴얼 된 쾌적한 채플 비디오 모니터를 비롯한 최신 시스템, 편리한 캐터링서비스와 아름다운 가든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곳은 리스장 의사뿐입니다 오렌지카운티에 계신다면, 리스장 의사와 상담하세요

고인의 교회, 자택 등, 평소에 고인이 편안하게 생각하신 곳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리스장 의사에서 가족처럼 함께 일하실 장례서비스/장례적금/장례보험 카운셀러를 모십니다
 문의 (310)984-0888 / rchoi@leesmortuary.com





살롬장애인선교회가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지난 16일 개최했다.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가 간증하고 있다.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위한 콘서트

18년간 매년 2차례, 현재까지 휠체어 10,672대 선적

살롬장애인선교회가 빈곤국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를 보내기 위한 모금 행사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16일 오후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했다.

살롬선교회는 지난 18년간 매년 2차례씩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다. 최근까지 12개 빈곤국에 휠체어 10,672대, 기타 의료 보조기구 43,290점을 보냈다. 살롬

선교회는 남가주 내 장애인들을 섬길 뿐 아니라 장애인 복지가 전무하다 할 수 있는 빈곤국을 위해서 '사랑의 휠체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운동을 위해 2003년부터는 콘서트를 열고 그 수익금으로 빈곤국 장애인을 섬기고 있다.

올해 콘서트에는 테너 오우영, 경기여고 동문합창단, SCDC수화환양팀, SDM찬양팀과 함께 배주은 양,

유엔젤보이스 등이 출연해 사랑을 모았고 수백 명의 청중들이 아낌없는 박수로 함께 했다.

선교회 대표 박모세 목사는 "휠체어 사랑 이야기는 장애인들에게 사랑과 소망을 주는 이야기이다. 휠체어에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실어 보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며 후원을 당부했다. 문의) 323-731-7724

성경책만 안 읽던 사람이 성경책만 읽는 사람으로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 간증집회

지난 14일 또감사선교회(담임 최경옥 목사)에서 조혜련 집사의 간증집회가 있었다. 교육방송에서 잉글리쉬 클리닉을 맡고 있는 조 집사는 방송국이 일산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번 미국 일정이 가능했다는 간증을 전하며 기도도 시작했다.

벧사에서부터 조 집사는 말 안 듣는 천재구리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 아들을 바라는 집에 다섯째 딸로 태어났고, 5학년 때는 농사를 지어 야채를 시장에 파는 엄마를 따라 버스에 올라랐는데, 버스비 아깝다고 안 데려가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시장에서 야채를 가장 잘 파는 소녀였다고 한다. 돈이 없어 대학에 갈 수 없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합격했다. 그나마 언니가 입학금을 빌려주어서 대학에 갈 수 있었다.

대학 시절 개그맨 공채에 응시했지만, 외모가 방송용이 아니라 주방용이라는 이유로 낙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삶에 회의를 느끼고 학교를 휴학한 후 쌀과자를 만드는 공장에 취업해서 열심히 학비를 벌던 어느 날, 노동에 지친 근로자들이 텔레비전을 보며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그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고 개그 콘테스트에 재도전하였고 1등으로 뽑혀서 그때부터 개그우먼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중국어 강사 자격증도 따고, 일본어도 열심히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도 해 보고, 이거 저것 여러 종교도 가져보았지만 늘 공허했고 행복하지 않았다고 한다.

권사가 새벽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고 했을 때, 이름을 빼라고 했을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진화론과 윤회 사상에 더 믿음이 갔다고 한다. 그러나 남편인 고창배 집사의 "교회 한 번만 나가면 평생 존댓말을 하겠다"는 말에 혹해서 4년 전 교회를 갔다가 주님을 만났다.

조 집사는 "교회 나가기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보면, 이전에는 성경책만 안 읽고, 이후에는 성경책만 읽는 삶으로 바뀌었다. 처음 성경을 읽을 땐 어려워져 안 읽었지만, 성경책을 읽고 있으면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간증했다.

그는 요즘 지인들과 함께 매일 5장씩 성경을 읽고 녹음해서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조 집사는 방송 활동으로 인해 중국, 일본 등에서 살아보면서 이민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위로했다. 그는 성도들을 향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승리하라"고 권면했다.

한편, 조 집사는 또감사선교회에 앞서 지난 11일 일반인사랑교회(박현식 목사)와 12일 오렌지가 나안장로교회(김인철 목사)에서도 간증집회를 했다. 또 16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 한미음제자교회(곽부환 목사)와 오후 12시 30분 미주서부장교회(김선익 목사), 오후 6시 올림피아장교회(정장수 목사)에서 집회를 하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다.

엘비 권 기자

색소포니스트 정창균 목사 "좋아 좋아 서울" 발표



정창균 목사와 정태미 사모

한국의 1세대 색소폰 연주자, 3대의 색소폰을 동시에 연주하는 기네스북 등재자, 재즈가스펠의 선구자인 정창균 목사가 전 세계 한인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좋아 좋아 서울(하나님이 보호하는 대한민국)"이란 곡을 발표했다.

작사와 작곡 모두 정 목사가 했으며 노래는 그의 아내이자 찬양가수인 정태미 사모가 불렀다. 또 이 노래의 반주는 10인조로 구성된 정창균가스펠빅밴드가 연주했다. 현재 유튜브에 동영상 업로드 돼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노래 가사에는 음악인의 감성과 신앙인의 담력이 담겨 있다. "무지

개가 떠오르는 세종로, 용맹스런 총무공을 바라보며... 우리 조상 열이 있는 덕수궁, 연인들이 행복하게 걸어가고... 정다운 곳 우리의 서울, 자랑스런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는 대한민국" 등이다.

정 목사는 월드재즈가스펠미션의 대표다. 이 단체는 미국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2009년 창단됐으며 정 목사는 미국 주류 재즈 무대에서 연주자로 있으며 미국 LA타임스, 폭스TV에도 보도된 바 있다. 한국에서는 KBS 열린음악회, SBS 스타킹, 서울시청 앞광장 등에서 자신만의 연주 실력을 뽐낸 바 있다.

"위탁가정 아이들에게 사랑의 책가방을"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가 위탁가정 아이들에게 전달할 '사랑의 책가방' 후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랑의 책가방' 후원 캠페인은 한인가정상담소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위탁가정 아이들에게 새학기 책가방과 학용품 전달하고자 매년 여름 이어오고 있는 캠페인이다. 지난 2014년 처음 시작, 올해로 4회째를 맞았으며, 지난 3년간 한인 사회 후원으로 총 1042개의 책가방을 LA카운티 아동보호국에 전달한 바 있다.

올해도 7월 한 달간 도네이션 받은 후원금으로 책가방과 학용품을 구입, 8월 초 웨스트코비나에 있는 아동보호국 산하 APP(Asian Pacific Project) 유닛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곳은 LA카운티에 있는 아시안 위탁가정 아이들을 관리하는 곳으로 전달된 책가방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한인 위탁아동들은 물론 아시안계 위탁가정 어린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전달된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 정 조 소장은 "매년 한인사회의 관심과 사랑으로 목표한 숫자보다 많이 준비하여 위탁가정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많은 한인들이 따뜻한 후원의 마음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랑의 책가방 후원 방법은 두 가지로 ▶ 물품(책가방/학용품)이나 ▶ 후원금(50달러)으로 동참할 수 있다. 후원금은 개인 수표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지불할 수 있다. 수표 보낼 곳은 한인가정상담소(3727 W. 6th St. #320 Los Angeles, CA 90020)이며, 신용카드는 한인가정상담소 홈페이지(www.kfamla.org)에서 온라인 결제할 수 있다. 문의) 이재민 매니저 213-235-4868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ANC 세미나 공식 후원업체

GSI 블랙박스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무료 설치"

GSI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블랙박스과 함께 안심 운전하세요

1

Aitz SMVB-6100

- 컴팩트 실속형 (주차감시 모드 시 전/후방 모션 감지 및 충격감지를 동시에 지원)

\$150 전.후방
\$190 전.후방

2

Aitz ROAD

- 3.5인치 터치스크린
- 포맷프리, 고온 차단 기능
- 128GB까지 인식

\$220 전.후방

3

Aitz ALPHA

- 4.0인치 FHD 의 터치스크린
- 첨단 안전운전지원 시스템(ADAS)탑재
- 포맷프리
-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으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최적의 탑재위치

\$320 전.후방

4

Aitz RC-100

- 후진기어시 자동으로 주차영상을 보여주는 콤포트형
- 4.0인치 터치스크린

\$320 전.후방

5

eCell e-FOCUS

- 본체 분리 2채널 초소형 카메라
- 스마트폰 연동기능 (모바일 앱 통해 녹화영상, 실시간영상, 충격영상 확인가능)
- 포맷프리
- 앱 무료설치 및 업데이트
- 스트릿 파킹도 안심하세요

\$320 전.후방

* 그외 상업용 차량 및 모터 사이클용 블랙박스 판매

전시 및 Warehouse
GSI Systems, Inc.
 860 E. La Habra Blvd, #220A
 La Habra, CA 90631

GSI 블랙박스 판매/설치 연락처
LA & OC : T(408)966-8595, (714)349-8131
GSI SYSTEMS INC. - DASHBOARD CAMERA COMPANY
 유럽차 (Benz, BMW, Audi 및 특수차량)는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Coupon

기독교일보 독자들만을 위한 혜택!
 이 쿠폰을 지참하신 분들에게는
 Micro SD Card 32GB 무료 증정



주요 참석자들이 이날 안수를 받은 8명의 신임 목사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독립교회연합회, 목사안수식 거행 설립자 박조준 목사 “시대를 건져내야 할 사명 명심하길”

사단법인 국제독립교회연합회(이하 웨이크, 설립자 박조준 목사) 제2회 미국 목사안수식이 지난 14일 오렌지카운티 하나교회(담임 박종기 목사)에서 진행됐다. 이날 안수 받은 8명의 목회자들은 영혼구원의 가장 소중한 사명을 주신 주님만을 위해 달려가겠다고 결단했다. 사무총장 임우성 목사의 인도로 드러진 1부 예배에서 조영의 목사(하일랜드 장로교회 원로)가 대표기도 하고, 이용민 목사(용인 양문교회)의 성경봉독 후 박조준 목사(명예회장)가 설교했다. 헌금기도는 이길용 목사(생명중앙교회 원로)가 했다. '나를 보내소서'(이사야 6:1-8)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박조준 목사는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삼아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며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바로 지금, 이사가 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하며 '어둠과 부패가 있는 곳에 저를 보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

결단이 하나님을 만난 자라는 증거"라며 "우리는 이 시대라는 배를 건져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안수식에선 목사서약에 이어 도옥희 목사(생명중앙교회 담임)의 안수례 대표기도, 박조준 목사의 공포 후 문주현 목사에게 목사안수증과 패를 수여하고 안문혁 목사(미주교목위원회, 영평교회 원로)가 8명의 신임 목회자들에게 축사했다. 전재학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고문)가 격려사와 축가로 영광을 돌렸다. 안수받은 이들을 대표해 인사한 이장욱 목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종의 길을 걷기 위해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살고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영적 지도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문주현 목사도 "일상의 영성을 추구하면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현재 목사(남가주크리스찬교회)는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뒤돌아 보지 않고 주님만 보고 달려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다"

고 전했다. 이날 안수를 받은 8명의 신임 목사는 김석분 목사, 문주현 목사, 배현경 목사, 이연주 목사, 이장욱 목사, 유성희 목사, 유현재 목사, 정기용 목사다. 안수식은 강형길 목사(시카고 참길교회 원로)의 축도로 모두 마쳤다. 웨이크 사무총장 임우성 목사는 "이번 안수자들의 신학배경은 풀

러, 아주사, 그레이스, 덴버, 탈봇, 칼빈신학대학원 등이며 이화여대, 조지워싱턴대, 플로리다주립대학 등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이 모였다"고 밝혔다. 한편, 안수식이 열리기 전 '필수 목회 부부세미나'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됐다. 첫 강의를 박조준 목사(명예회장)가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주제로 전했다. 박 목사는 "목회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이고 직임이기 전에 사명"이라며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말씀은 일점일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직 말씀을 믿어야 한다"면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 목사는 "목사는 또한 부지런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도 일찍 일어나. 하지만 목사는 더 일찍 일어나야 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심같이 주 안에서 언제나 적극적이고 긍정적 믿음이 가장 필요하다. 언제나 주 안에서 긍정적인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믿음에는 순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러고성을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다. 믿고 순종을 해서 무너진 것"이라며 "그렇기에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목회자에겐 소망이 있어야 한다. 소망은 꿈이다. 꿈을 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꿈을 버리지 말아라. 반드시 이뤄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면서 "또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기독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종교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이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아울러 "교인들이 교회 오는 것이 목사의 말을 들으러 나오는 것일까?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다. 그것을 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사라는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안문혁 목사(미주교목위원장)는 '제자를 삼으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기 전까지는 세상의 잠정적 권세가 마귀에게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마귀 일을 멸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전하라고 명하셨으니, 전도자는 주님이 권세를 가지고 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웨이크는 내년 7월 21일 오렌지카운티 하나교회(담임 박종기 목사)에서 제3회 미주안수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전화) 714-476-4419 홈페이지) www.waic.kr 이메일) zionsung77@naver.com 김진영 기자



필수 목회 부부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는 박조준 목사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일 해결을 한 달에 남려 드리겠습니다.
·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미주 총신대학교 입학/편입생 모집

미주 총신 대학교는 장로교 신학교로서 1991년 2월 대한 예수교 장로회(한국/합동) 총신대학교 재단 이사회에서 미주 본교로 인준하였고, 1995년 대한 예수교 장로회 81회 총회의 결정에 따라 독립 운영되는 인준 신학교이며, 대한 예수교 장로회(미국/합동) 해외 총회의 인준 신학교입니다. 본교는 칼빈주의 개혁교리에 기초하여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갈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여러 방면의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9회 7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17년 가을학기 개강 일시: 2017년 8월 29일(화) 오후 7시

- 대학 학과 및 학위과정
학사과정: 신학과 (BA in Theology)
- 신학대학원 및 학위과정
신학대학원:
M.Div.(목회신학전공) - 학사학위 소지자로 세례교인
D.Min: 석사 학위 소지자

본교 수업은 특별 세미나와 토요 집중 강의(오후 1:00-6:00)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SEVIS I-20 본교발행

- 박사과정(Doctor of Ministry) 모집 공고
D. Min. - 목회 경력 3년 이상의 M.Div. 이상 학위 소지자
1. 학교 입학에 필요한 원서와 서류를 학교 홈페이지(www.chongshinusa.edu)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유학생을 위한 I-20 Form을 발행합니다.
3. 각종 장학혜택이 있습니다.
4. 지역에 따라 타주 또는 타국에서도 통신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본교는 현재 주정부에 등록된 대학으로 연방정부가 인정한 Trans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TRACS)에 인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원(학사 과정/ 학점 은행제) 모집 공고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동등 학력자/ 초급 2년제 대학 졸업 및 대학 학점 소유자는 편입하여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강좌는 성경교육과 신학영역에 기초한 영어회화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학사 운영 방식: a. 학점 은행(120학점) b. 한국어와 영어 성경 Classes
2. 수업 일시: 토요일 강의 개설
토요일: 1교시 오전 10:00 ~ 12:00
2교시 1:00 ~ 3:00 (각각 3학점 총 6학점 이수)
3. 유학생을 위한 I-20 Form을 발행합니다.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 School of Theology

미주총신대학교
이사장 김근수 박사(Th.M., Ph.D.)
총장 김연도 박사(D.P.M.)

TEL: 213.487.1010 FAX: 213.487.3303
I-TEL: 070-7019-1011
2975 Wilshire Blvd.#300, L.A., CA 90010

www.chongshinusa.edu
e-mail : info@chongshinusa.edu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26>

2017 선교캠프를 다녀오다

2017년 7월 4일 오후 6시 30분. 미국 독립 241주년 기념일에 시카고 휘튼칼리지에서는 미주 인터콧선교회가 주관하는 2017 선교캠프가 3박 4일동안 열렸다. 70여 명 찬양팀의 선창으로 2천 명이 강당을 가득 메우고 찬양이 시작되었다.

항상 그렇듯이 기다림의 끝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사명 앞에서는 머뭇거리기 없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였다. 세계는 갈수록 어둡고 거짓과 악과 음란한 죄악에 돌파할 길이 없다고들 절망을 말할 때, 특히 미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근심의 고개를 떨구고 있는 이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선포하는 2천 여명의 청장년 세대, 청소년 세대, 그리고 유초등부 세대가 어우러져 교회 연합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을 보며 내일을 꿈꾸었다. 아직 이 나라는, 아직 이 세상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는 집회였다.

KIMNET(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의 상임대표인 최일식 목사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히스토토리 메이커로 모인 전세계 주의 군사들이 여러분 모두를 환영한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소망이다”라고 도전했다. 이어서 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담임)는 첫 강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자들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기대하라. 분향 갈 때까지 그 십자가를 간직하라”고 권면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첫날 저녁집회에서는 인터콧 대표 최바울 선교사가 “마지막 때의 징조”(마24장)란 제목으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루심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임”을 선포하며 참여한 모두에게 열방을 향한 선교의 꿈을 지켰다.

선교캠프는 3박 4일간에 송병기 목사(KPCA 전 총회장), Chris Bonner 목사(Lansdale Life 교회), Timothy Barber 목사(Orphan's Hope 이사), 최바울 선교사, 강요한 선교사, 윤열립 선교사 등의 전체 강의와 16개의 선택식 강의로 이루어졌고, 또한 다른 강당에서 유아캠프, Kid's 캠프, 청소년캠프가 열렸다.

프로그램 중에 절정은 셋째날 진행된 “BTJ Festival”이었다. 각 나라의 국기들의 등장과 중장기 선교사로 파송받는 이들을 위한 선교사 파송식은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미주 전역의 교회에서 전세대에 걸친 주님의 백성들이 미국 선교의 산실인 휘튼칼리지 교정에서 뜻깊은 선교캠프를 하게 된 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했다.



미주 인터콧 선교캠프가 휘튼칼리지에서 열렸다.

● 이장렬 교수의 <회복의 복음> 칼럼

목양사역의 단 한 가지 조건(요21:15-17)



이장렬 교수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신약학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상시키는 잊지 못할 아침 식사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대화를 시작하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반복 하심으로써 이 실패한 제자가 자신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직면케 하신다. 이를 통해 그를 재할, 복구의 길로 이끄신다. 세 번에 걸친 예수님과 베드로 간의 반복 질문과 대답은 각각 (1)“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 (2) 그에 대한 긍정적 답변, 그리고 (3) 목양사역에의 위임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심에 있어 예수님께서 거듭 물으시는 단 한 가지 질문은 그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지 아닌지다(21:15, 16, 17).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사역을 베드로에게 위임하심에 있어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랑이다. 물론 여기서 “사랑”이란 그저 감정적 반향이나 이끌림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반복 질문은 요한복음 18장에서 나와 있는 베드로의 반복 부인과 연결해 이해되어야만 한다.

베드로가 주님을 거듭 부인한 사건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반복 질문을 서로 연결 지어 볼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21:15-17에서 고자 “네가 나에게 대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느냐?” 정도를 물어보신 게 아니다. 도리어 “이제는 네 모든 것 다하고 네 생명까지 다해 나를 진정 사랑하는가?”란 가장 엄숙한 질문을 하신 것이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쉼(Shema)적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신 것이다. 실패한 제자에게 지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헌신하는지를 물어보신 것이다(신6:4-5; 막 12:28-34 및 마태/누가 병행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주님이 이 갈릴리 어부의 생사에 있어 궁극적 헌신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묻는 장엄한 질문이다. 이 질문이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그에게 목양사역을 위임하심에 있어 주께서 물으시는 유일한 질문이다. 말레니엄이 두 번 지났지만, 근본

도 모르게 스스로의 삶이 세상을 향해 아주 굵어 있음을 발견하고 스스로라치게 놀란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절대 세상을 좇지 말라고 남들에게 외치지만, 종종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세상이 너무나 깊이 들어와 뿌리 박혀 있음을 인식한다.

그러나 자신의 실패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렇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는지 모두 다 아신다. 지금 처절한 실패를 직면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느끼는 내적 진통도 그리고 실패의 무게도 모두 친히 헤아리신다. 베드로의 인생 실존의 한복판에 존재하는 많은 모순과 긴장을 다 이해하시고, 베드로가 그간 얼마나 많은 죄와 실수를 범했는지 다 아신다. 앞으로 베드로의 연약함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을 것 또한 아신다. 그가 위선에 빠져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우를 범할 것 역시 아신다(갈2:11 이하 참조).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긴 진정성 역시 깊이 헤아리신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보면서 좀 뻘뻘하다는 생각이 스친다. 그리고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 고백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 스친다. 삶의 실존 한복판에서 우리 자신의 삶과 신앙고백이 스스로에게조차 모순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존재한다면, 이 실패한 제자와 같이 감히 사랑을 고백해야 한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신다. 내 처절한 실패도 그리고 내 진정한 사랑도…… 주님께 숨겨진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모순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실존의 한복판 가운데서 우리 모습 그대로 그리고 우리 사랑 그대로 주님께 올려 드려야 한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옵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 다(21:17)”

La Mirada Garden Florist
Flowers For All Occasions
Serving OC and LA Counties since 1969

라미라다 가든 꽃집은 35년 넘는 경험, 노하우,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감각의 꽃으로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꽃집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개업식 그리고 모든 이벤트를 아름다운 꽃과 서양관, 각종 화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래지 카운터와 LA 카운터 배달 해 드립니다.

www.lamiradagarden.com
lamiradafiorist@gmail.com

Tel. 714) 521-0901, (800) 645-1114
14794 Beach Blvd., City of La Mirada, CA 90638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이사장 : 오병익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다,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ga.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북한 동족과 통일을 위한



통일포럼 Talk Show

나성순복음교회

나침반교회

통곡기도회

한국인 핏줄을 가진 모든 성도들의 공동기도

“주여 2017년이 통일의 해가 되게 하소서”

일시: 2017년 7월 21일 (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LA Full Gospel Church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일시: 2017년 7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장소: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Nachimban Church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EL: 562.691.0691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도 먼 북한, 우리는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탈북 파워 엘리트들이 폭로하는 북한의 실상을
통일포럼 토크쇼에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와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굶주림과 억압속에 처참히 죽어가는
북한 동족들을 위해 함께 통곡하며 기도합시다!

국제대표 손인식 목사

통일포럼 TALK SHOW 출연자



임창호 목사
고신대 교수



강철호 목사
북기총 회장/새터교회 담임



강철환 대표
북한전략연구소장



김아라 자매
채널A/탈북간증

특별찬양: 소프라노 최정원

Metropolitan Opera National Competition
LA District Winner,
West Regional Encouragement award
중앙음악콩쿨 1위, KBS 신인음악콩쿨 1위
Placido Domingo Operalia Quarter Finalist



생생한 탈북간증 및 증언: 김아라

탈북자매, 채널A 탈북간증



- **주관:** 그날까지 선교연합 (UTD-KCC Missions 국제대표 손인식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 **참가문의 및 안내:** UTD 선교 행정 본부 (TEL: 949.297.3788) 24196 Alicia Parkway, Suite E, Mission Viejo, CA 92691
- **이메일:** utdkcc@gmail.com / 홈페이지: www.kccnk.org

- 통곡기도회 개최를 원하시는 교회들은 UTD 선교 행정 본부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TEL: 949.297.3788)
-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UTD 선교 행정 본부로 전화 (TEL: 949.297.3788) 주시거나 홈페이지 후원방법 안내를 참조 해 주십시오

At a Church Leadership Program, Ministers Encouraged to 'Fight for Their Faith'

BY RACHAEL LEE

With the hope to reach "one more for the gospel," a church in Southern California has set out to train ministry leaders – both lay and pastoral – for more effective ministry.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ims to do so through a six-week summer program called LEAD (Leadership, Edification, and Development), featuring guest speakers who teach about various topics related to ministry, such as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or answering questions posed by millennials, among others.

Leaders of churches outside of Christ Central have also been invited to and in attendance at the weekly seminars.

The most recent seminar, which took place on July 13, featured Reverend Owen Lee from Christ Central Presbyterian Church of Centreville, VA, and focused on helping ministers stay spiritually healthy.

"It's possible for you to work very hard for Jesus, while walking very far from Jesus," said Lee. "My hope is that you would want to walk with Jesus and enjoy Him personally."

There are multiple ways to "fight for our faith," as Lee put it, such as corporate worship, personal worship, and other disciplines such as fasting or solitude. But in addition to those, Lee suggested two more ways to ensure spiritual health while doing ministry: "preaching the gospel to yourself," and "meeting in a safe community in which others can preach the gospel to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has been holding its LEAD program for ministry leaders since July 6, and will conclude the program on August 17. Reverend Owen Lee was featured as the guest speaker for the seminar which took place on July 13.

you."

Preaching the gospel to oneself involves a method that Lee called the "Gospel Waltz" – a cycle which contains three steps.

It begins when a believer is convicted of sin, and she then comes to God and repents of that sin. But that repentance must be twofold: a repentance of the surface sin, and a repentance of the root sin that led to the surface sin.

For instance, Lee said, suppose a Christian lied. That would be the surface sin. But the Christian must probe deeper and uncover the idols that led to the lie.

"Why did you lie? If you were worried about what people would think of you, maybe reputation is an idol for you," said Lee.

Then, she moves on to the second part of the Gospel Waltz: be-

lieving in the forgiveness and salvation that God freely gives. This is a step that many often carry out "mechanically" and move on from too quickly, Lee said.

"You have to sit here for a while and let it marinate," he explained. "This is where we wrestle with God, to be moved again by the beauty of the gospel."

"To fight for your faith, it takes energy and time," added Lee.

Finally, she asks the Holy Spirit what God would have her do in that situation, and obey.

The cycle begins again when the believer fails to obey, and sins once again.

Lee added that leaders need a community of safe people in which this can be done together – "a community of confidantes to fight for our faith."

"The more I confess my sins to you, the more protected I am from my sin," he said. "It is better to be embarrassed in front of my friends, than to be enslaved by my sin trying to keep it to myself."

He encouraged those present to be "vigilant" in fighting for their faith.

"What our churches need most from us as ministers, whether ordained ministers or lay ministers, is our personal holiness," he concluded. "That we're actually believing for ourselves what we're telling them to believe ... that we're not just telling people how good Jesus is but we're telling them because we have personally tasted his goodness for ourselves ... that what we do is an accurate reflection of what is actually going on in our own lives."

Prayers for Hyeon Soo Lim, Detained in North Korea, Continue

Most recent
gathering in Toronto
draws hundreds

Hundreds gathered in Toronto in late June for one of the largest prayer meetings held on behalf of Reverend Hyeon Soo Lim, the Korean Canadian pastor who is currently detained in North Korea.

Lim, who was arrested and detained in February of 2015, was sentenced to life in prison. Since then, multiple prayer gatherings for his safe return have taken place in Canada, the U.S., and South Korea.

This recent gathering drew more than 800 people, according to Radio Free Asia. Pastors from the surrounding community led prayers for the government to handle the situation wisely, and for Lim's health.

"We heard that a direct interview with Reverend Lim took place at the Swedish embassy last month," Rev. Jason Noh, who currently leads Light Presbyterian Church where Lim used to serve as senior pastor, said at the gathering. "They took a photo of Reverend Lim and sent it to his family."

Noh added concerns that Lim's health seems to be deteriorating, as his weight has dropped from 90 to 60 kilograms.

"The efforts of our Canadian government thus far, though appreciated, have failed to capture the seriousness of this issue," Richard Ha, a spokesperson for Light Presbyterian, was quoted as saying by The Star.

Indeed, the family expressed increasing concern for Lim after Otto Warmbier, an American university student who was also detained in North Korea, died after his return.

"The family is very concerned at this point," Lisa Pak, a spokeswoman for Lim's family, was quoted as saying by Reuters at the time. "They are hoping the Canadian government will turn (efforts) up a few notches in terms of active diplomacy and really start engaging."

The prayer gathering also included a time to pray for Warmbier's family and loved ones.

Korean American Non-Profit Sets Out to Provide New Backpacks and Supplies to Students in Foster Care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is currently carrying out its annual campaign to give new backpacks and school supplies to students in foster care.

The campaign, called 'Backpacks of Love,' began in 2014, and has been carried out every summer since, with the aim to provide new school supplies and backpacks for students in difficult situations. Since the first summer it took place, the funds raised through the campaign has allowed KFAM to purchase and give 1,042 new backpacks containing school supplies to the LA County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ervices (DCFS).

This year once again, the non-profit will be purchasing these

new supplies in August with the donations received throughout the month of June. The new supplies will then be given to the Asian Pacific Project within the LA County DCFS, which takes care of the Asian American children in the foster care system.

"Every year, the love and interest shown by the Korean community has allowed us to be able to prepare more supplies than our initial goal," said KFAM's executive director Connie Chung Joe. "I look forward to the warm support that we will be receiving from the Korean community once again this year."

Last year, KFAM was able to prepare 337 backpacks, which allowed for a number of backpacks to be given to students who are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is carrying out its fourth annual 'Backpacks of Love' campaign during the month of July. (Photo courtesy of KFAM)

hard of hearing, and American Indian students in the foster care system.

Those who are interested in

participating could do so by donating school supplies or financially. For more information, visit kfamla.org.



LA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점심식사 제공
회비없음/무료주차

제 1회 건강교회 교실

로스앤젤레스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교회와 성도를 위한 세미나와 포럼을 계속하여 준비하겠습니다

2017년 7월 29일 - 9월 9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12시

장소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C.I.U. 강당)
3130 Wilshire Blvd #303 LA, CA 90010

강사 권연경, 박문규, 송병주, 안재엽, 조주현, 허성규

문의 및 예약 LA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13.387.1207
Email:email4lacem@gmail.com

일시	주제	제목	강사
7/29(토)	건전한 설교	기복신앙으로부터 해방	조주현 LA 기윤실 간사
8/ 5(토)	교회 정치	교회 정책 결정 구조와 운영	박문규 C.I.U. 학장, 정치학
8/12(토)	교회 재정	올바른 교회 재정	허성규 C.S.U. San Bernardino 교수, 회계학
8/19(토)	교회론	건강교회의 신학적 배경	권연경 숭실대학교 교수, 기독교학
8/26(토)	이민 교회	이민 교회의 특성과 건강성의 지표	송병주 선한청지기 교회 목사
9/ 9(토)	교회 갈등	갈등 예방 및 분쟁 해결	안재엽 Compassion Law Group 변호사

Letting My Dreams Go

BY BEN CLEMENT

“And he’s YouTube famous!”
These are the words my friends use to describe me after I introduce myself. If you search my name on YouTube, you will find me singing original songs and covers, playing guitar, and some amusing music videos.

Music has always been a big part of my life. I sang along with it, danced to it, and even fell asleep to it.

In high school, I saw someone else become a star overnight, and it looked so easy. Get a MacBook, record yourself, and post it online. If the world thinks you’re good, YOU’RE FAMOUS!

For someone to do this, he or she would need a tremendous amount of confidence. I had plenty of that, and then some. I thought this would be a piece of cake. I posted my first video, went to bed, woke up, and guess what? I wasn’t a viral sensation. I felt naive and very disappointed. The mixture of pride and confusion drove me nuts.

After my initial disappointment, I continued to put myself out there. One day I went to my first Open Mic at a coffee shop and performed. I stood on stage as this skinny, Asian, 16-year-old boy who claimed he could sing, and I killed it!

People really liked me, and the approval was the feeling I was looking for. I needed more of that high, so I performed and performed and performed. Sure enough, I was getting recognition, my YouTube views were going up, and I was thinking to myself, “I can’t wait for what God has in store for me!”

Soon after, I went to Biola University as a Music in Worship major, and when people asked me about why I chose my major, I replied, “For the Lord.” But I said it to cloak the selfish ambition in my heart. I was addicted to the dream of being famous.

I started working with a producer, and it seemed very promising. I had a website, I was getting more views on YouTube, and I had my own studio space to work out of.

But there was a catch. I was juggling 9 classes, performances, producing music, creating videos, serving at Biola, and serving at church. Never had I felt so overwhelmed in my life.

I was doing poorly in school, I wasn’t getting much sleep, I was making irresponsible decisions, and it was all crashing down on me. The worst part was, I was so caught up with the dream of being “famous” that I didn’t care about anything else. I kept thinking, “It’ll all end once I make it.”

I eventually had a falling out with the producer, and it seemed at that moment, my dream had slipped through my fingers. I felt so lost and confused because I thought that I was meant to be a successful musician. I thought I had deserved this. But now, it was gone.

I remember thinking, “If I don’t have this, what do I have? If this is not who I become, who am I?” Then I remembered a song we had sung during one of my Bible classes at Biola called, “Jesus, All For Jesus.” The lyrics go like this:

“All of my ambitions, hopes, and plans / I surrender these into Your hands / For it’s only in Your will that I am free.”

The song reminded me that if I had lost everything, that I would still have Jesus. No matter how much I thought I might’ve failed, nothing would change that Christ came to save and redeem me.

I was chained to an idol of someone who I was hoping to be: a famous musician who would win the hearts of millions and then, point to God after receiving what my heart desired. To be honest, I couldn’t say for sure if I would’ve even

given God any credit.

At the time, my lack of understanding made me feel that maybe I was being punished by God, but what I was failing to see was a God who was pulling me closer to Him. He was reminding me that my identity was not meant to be shackled to something that will one day be gone with the world, but rather, that I am a citizen of Heaven because of what Christ has done.

So, what happened with my YouTube channel? It’s still there and I occasionally post when I have time. I focus more of my time at my church, serving as the associate worship director.

My current goal as a musician is to help people understand the Gospel and that our gifts are meant to glorify God, not ourselves. I’ve learned these gifts are given to us to serve others and not a tool to build our own kingdom.

I think it’s so amazing that God, despite our failure and sin, redeems us through Christ and chooses to use us even though He can do it Himself, and do it way better than us. That’s how awesome and gracious our God is.

Some people may say that I let go of my dreams and that I may be foolish. Some people may be disappointed because they believe that I had so much potential.

I don’t know where God will lead me next. I don’t know what His plans are for me, but I can confidently say that I trust in Him. His faithfulness to me is not a result of my faithfulness to Him and I will forever be in awe of His love for me.

Ben Clement is the associate worship director at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This article has been republished with permission from the SOLA Network website. SOLA exists to influence the emerging generation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Seven Costs to Being an Evangelistic Leader

BY THOM RAINER

The topic of evangelism has grown strangely quiet in many churches. Pastors are not talking about it. Other church leaders aren’t talking about it. Members aren’t talking about it.

And if we aren’t talking about evangelism, you can be assured many of us aren’t doing evangelism.

There are likely many explanations for the death of evangelism in our churches. Among them is the stark reality that many of our church leaders, pastors and others, are not intentionally evangelistic.

Why is that?
Though it is not an excuse, we must acknowledge that the pastors and other church leaders pay a high cost when they become intentionally evangelistic. Sometimes it just seems easier to keep our mouths shut about the gospel. Look at these costs to being an evangelistic leader in a local church.

1. *It is spiritual warfare.* Satan and his demonic horde do not want people to know the saving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ough the manifestations of demonic opposition are many, you can be assured the evangelistic leader will confront such opposition again

and again.

2. *You will be viewed as narrow-minded.* John 14:6 does not sit well with culture. Though Jesus Himself said He was the only way, truth, and life, leaders will be rejected and opposed for such “narrow-minded” thinking.

3. *Something else must be sacrificed when you are an evangelistic leader.* Your time is limited. You have sermons to prepare. You have hospital visits to make. You have counseling appointments. You have way too many meetings. And hardly a day goes by without a new and unexpected crisis arising. You must sacrifice something else to take time to share the gospel with others.

4. *Some of your members will complain.* You have some church members who will complain about anything that does not serve them personally. It may be headed under the passive-aggressive guise of “I’m not being fed,” but you can be assured some of your members will oppose your leadership in evangelism.

5. *New converts will be seen as threats or inconveniences in your church.* True story. In one of the churches I served as pastor, a lady tried to get me fired because the “new people” were “messing up our church.” New Christians are needy. Some longer-term members don’t like to

give up their comforts for others.

6. *Discussing theology is easier than doing theology.* I wish we spent an equal amount of time sharing the gospel as we do talking and debating theology. Yes, we need to take bold stands for the truth. But we don’t need just to stand there; we need to do and go.

7. *You will have to break out of your holy huddles.* It’s more comfortable hanging out with people who are like us and who believe like we do. But you will not have that luxury if you become an intentional evangelistic leader in your church. You will discover new relationships with non-Christians, which means you can’t spend all your time with Christians.

There are costs to being an evangelistic leader in your church.

But the benefits are far greater.

They last through eternity.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at ThomRainer.com on July 12, 2017. Thom S. Rainer serves as president and CEO of LifeWay Christian Resources. Among his greatest joys are his family: his wife Nellie Jo; three sons, Sam, Art, and Jess; and nine grandchildren. Dr. Rainer can be found on Twitter @ ThomRainer and at facebook.com/ Thom.S.Rainer.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missionchurch.org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net.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한인교회를 위한 SUMMER EVENT



VBS T-Shirt
Full Color Printing
Adult \$ 7.20
Kids \$ 5.50



그 밖에도 VBS를 위한 물티슈, 가방, 배너, 포스터, 초대장 디자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CD PRINTING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프린트CD+CD봉투+라벨] 포함입니다.

BANNER



\$65
Stand X-Banner

\$140
Retractable Banner

\$160
(디자인 포함)



3170 E. 11th Street, Los Angeles, CA 90023 323.265.0244 E-mail: junimedia@gmail.com

Eugene Peterson, Translator of The Message Bible, Retracts Comments on Same-Sex Marriage

Eugene Peterson, most known for his authorship of The Message translation of the Bible, released a statement on July 13 afternoon retracting a comment he made during an earlier interview that he would perform a same-sex marriage today if he were asked.

In the interview, published on July 12 by the Religion News Service, Peterson was asked, "If you were pastoring today and a gay couple in your church who were Christians of good faith asked you to perform their same-sex wedding ceremony, is that something you would do?" Peterson responded with: "Y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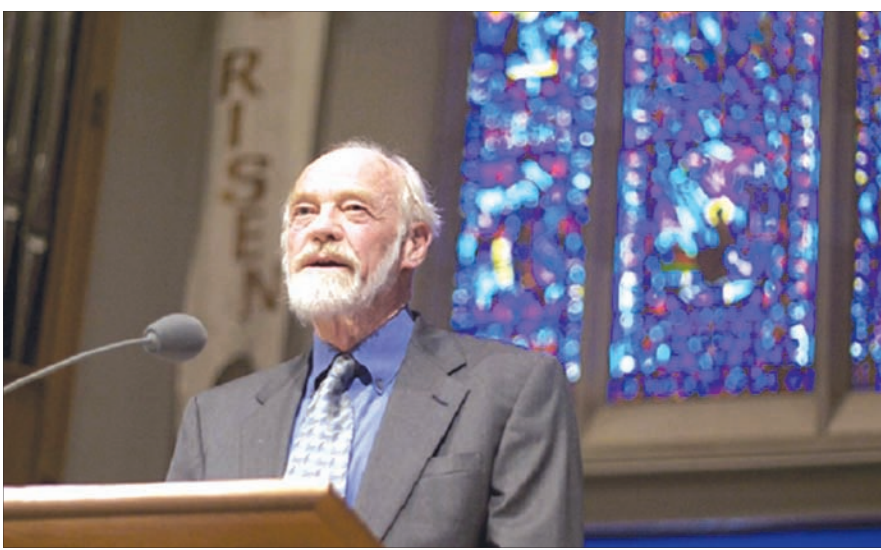
Peterson added previous to that question that he hadn't had "a lot of experience" with people who had same-sex attractions, and that in the congregation that he led, he didn't "think [the members] ever really made a big deal out of it."

"I wouldn't have said this 20 years ago, but now I know a lot of people who are gay and lesbian and they seem to have as good a spiritual life as I do," Peterson, 84, told Religion News Service reporter Jonathan Merritt. "I think that kind of debate about lesbians and gays might be over. People who disapprove of it, they'll probably just go to another church."

However, in the statement he released on Thursday, Peterson said: "To clarify, I affirm a biblical view of marriage: one man to one woman. I affirm a biblical view of everything."

"It's worth noting that in my 29-year career as a pastor, and in the years since then, I've never performed a same-sex wedding," he continued in his statement.

"I've never been asked and, frankly, I hope I never am asked. This reporter, however, asked a hypothetical question: if I were pastoring today and if a gay couple were Christians of good faith and if they asked me to perform their wedding ceremony—if, if, if. Pastors don't have the luxury of indulging in hypotheticals. And to be honest, no is not a word I typi-



Eugene Peterson pictured lecturing at the University Presbyterian Church in Seattle, WA in 2009. (Photo: Clappstar / Wikimedia Commons / CC)

cally use. It was an awkward question for me because I don't do many interviews at this stage in my life at 84, and I am no longer able to travel as I once did or accept speaking requests."

Peterson's comments in the interview had drawn criticism from conservative circles. LifeWay Christian Resources, the largest Christian bookstore chain in the country which is also affiliated with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C), even announced it would consider taking down all of Peterson's 135 books that are currently sold in its stores, including The Message Bible.

Russell Moore, president of the 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of the SBC, wrote in a blog post previous to the time that Peterson's statement was published that he was "disappointed," yet that he "can't un-highlight or un-flag" the Peterson books that he owned and studied. He added at the end of the post that Peterson "may well rethink this."

"I am glad to hear Eugene Peterson retract his earlier statement, endorse the historic Christian view of marriage," Moore tweeted on July 13.

Progressives were quick to halt their

applause. Matthew Vines, founder and executive director of The Reformation Project which affirms same-sex marriages, tweeted on Wednesday that Peterson's comments in the interview marked "an amazing moment."

However, on Thursday afternoon he said: "Tip to anyone who cares about LGBTQ people: Never, ever say you are affirming if you aren't willing to pay the price. And it's a steep one."

Meanwhile, Merritt posted an opinion piece on Thursday afternoon after Peterson's retraction statement, noting that "in the week prior to the publication of his answers, there was no attempt to clarify or change his answer to these questions."

In trying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Peterson's retraction, Merritt wrote: "All I know is that Eugene Peterson is a man of deep faith who has lived, in his words,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His life and ministry bear witness to his love for God, love for people, and his love for the Bible. Peterson's views on same-sex marriage — whether he affirms it or opposes it — have no bearing on my respect for him or his ministry."

Oregon Legislature Passes Bill Expanding Access to Abortion and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BY JESSICA LIM

A bill in Oregon state that requires private insurance to cover the cost of abortion procedures was passed by the Oregon Senate on July 5.

House Bill 3391, also named the Reproductive Health Equity Act, now awaits signature from Governor Kate Brown.

The bill passed in the Oregon House with a 33-23 vote on July 1 and in the Oregon Senate with a 17-13 vote on July 5, both along party lines.

Representative Julie Fahey said in a statement that, "affordable access to reproductive health care shouldn't depend on who you are, where you live, or how much you earn," adding that, "health care is a basic human right."

The bill aims to provide the service of abortion procedure at no cost to patients. However, some of the financial costs will come out of taxpayer money. House Bill 3391 will allocate almost \$500,000 dur-

ing the next two-year period, according to the Oregon Health Authority.

These services will be available both for those privately insured and those that are a part of the state's Medicaid program, which currently pays for about 3,500 abortions within the state, spending almost \$2 million a year. Undocumented residents who are ineligible for Medicaid can take also part in these services, with the costs being paid for by the state's general fund.

Oregon's \$10 million health care bill requires health plans to cover the costs of various services other than abortion such as vasectomies, prenatal and postpartum services, as well as screenings for breast cancer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The bill states that employers may receive religious-based exemptions "only if the insurer notifies in writing all employees who may be enrolled in the health benefit plan of the contraceptives or procedures the employer refuses to cover for

religious reasons."

Those eligible for these exemptions are those who employ and serve people who share the religious views of the employer, as well as religiously affiliated nonprofit organizations, as stated in Oregon state statutes.

Supporters lauded the passage of the bill, saying HB 3391 will provide access to more comprehensive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in the state in the midst of efforts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Republican members in Congress to restrict those services under the Affordable Care Act.

However, opponents cited concerns that the bill will cause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abortions in the state.

"Will House Bill 3391 increase or decrease the number of abortions in the state of Oregon? If it will decrease the number then sign me up. But I'm afraid we all know that's not the case," stated Representative Werner Reschke.

Sunday Services: 1:30 PM
Children's Ministry: 11 AM
Friday Worship: 7:30 PM
Dawn Prayers: 5:30 AM Tu-F; 6:30 AM Sat.

PASTOR WON LEE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rg

Sunday Services: 1:45 PM

PASTOR MITCHELL PEREZ

The Home Church

19100 E. Killian Avenu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샀고려대 안암병원내 샀
입점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좌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알칼리성

산성	중성	알칼리성
3.5	6.0	7.0
8.5	9.0	9.5
10 셀라케어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목사 안수 및 강도사 인허

본 교단과 노회에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과 사명은 있으나 아직 목사안수를 받지 못하였거나 강도사 인허를 받지 못하신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받았지만 선교사 라이선스를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본 교단에서 선교사 라이선스를 수여합니다.

- 자격**
 - 1) 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이 있는자. (단, 이단은 제외되며, 나중이라도 이단임이 밝혀질시 모든것은 자동으로 취소됨)
 - 2) 하나님께 소명과 사명을 받아 이시대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자 헌신된자. 서류 : 소정의 응시원서, 추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기자신의 신앙고백서
- 시험**
 - 1) 강도사 : 소정의 2주간 교육후 시험을 분후 강도사 인허
 - 2) 목사 : 소정의 교육후 시취후 목사안수
기간 : 2017년 6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서류전형)
주최 : *All The Nation International Evangelical General Assembly
*Koam Presbyterian Church
*The Hap Dong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신, 편입생 모집
본 신학대학원은 개혁주의 학교로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진 신학교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캘리포니아 주교육국에 종교학교로 정식 인준 받은 학교입니다.

■ 학위과정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모집합니다. 특히 타 학교에 없는 지역에서 필요한 학과들이 많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찬 사회복지학과와 크리스찬 레크레이션, 스포츠 코칭학과가 준비되어있으며, 비영리 종교단체 비즈니스 메지시먼트 학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나 사전 연락후 방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고 : 교단이나 학교는 다른 어느단체나 한국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충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총장 : Dr. DAVID LEE, 학장 : Rev. YO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EL : (213)422-8916, (213)386-0300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담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차기 담임목사 청빙

나성북부교회(kcnla.org)에서 후임으로 사역하실 담임목사님을 찾습니다. 본 교회는 해외한인장로회(KPCA)에 속해 있으며, 올해 창립 42년 입니다. 청빙된 분의 사역시작 시기는 2017년도 말에서 2018년도 초입니다.

- 자격조건**
- 정규신학교 졸업
 - 3년 이상 이민교회 경험
 - 해외한인장로회(KPCA)교단 가입 가능한 분
 -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취업이 가능한 분

- 제출서류**
- 이력서 (이메일주소 필요)
 - 가족 소개서 (사진 포함)
 - 졸업증명 및 학위증명서
 - 목사안수증명서
 - 목회 철학및 계획서
 - 최근 설교 2회 (웹의 동영상 주소)
 - 추천서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한 분에게 필요함)

제출마감일/보내실 곳
2017년 8월 15일(화), kcnlanextgen@gmail.com
서류는 E-mail로만 받습니다. 모든 서류는 PDF 또는 Word파일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검토할 것이며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한 분에 한하여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성북부교회

내려놓음, 내어드림, 그리고 내어 맡김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아십니다. 안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안식의 비밀은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무척 힘이 드는데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무거운 짐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언약의 자녀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노년에 웃음을 선물해 준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이삭은 그의 이름처럼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았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부터 이삭을 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이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삭이 그의 삶에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 22:2). 그것은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이 내리신 결단이었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삭을 번제단에 내어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삭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이삭을 그의 손에서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이 있을 때 “내어드림”이 있습니다.

“내어드림”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

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어드림”은 “내어 맡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맡긴 것입니다. “내려놓음”과 “내어드림”은 결코 자포자기 아닙니다. 오히려 “내어드림”은 우리가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안식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내려놓음”에서 “내어드림”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어드림”에서 “내어 맡김”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빈손에 큰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큰 복은 이삭과 그 후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헌신이 자녀에게 큰 복이 된 것입니다. 부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담당해 주길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시 68:19). 아침마다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맡기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긴 것만이 가장 안전합니다.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날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자식들에게 무엇을 심어줄까?

미국 미네소타 주의 작은 마을에 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도전한 인물이 로버트 바비 터프스(Robert Bobby Tuffs)라는 5살 짜리 꼬마였습니다. 그곳은 인구 28명에 불과한 초미니 마을로 주민들이 제비뽑기로 시장을 뽑는다고 합니다. 터프스는 3세 때 참가비 1불을 내고 시장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이번이 3선 도전이었는데 그만 패배했습니다.

그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재임 중 가장 큰 치적으로 푸드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아이스크림을 지정한 것을 꼽았고, “이제 2세인 동생 제임스에게 시장 출마를 권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더구나 흥미로운 사실은, 터프스의 부모가 “204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아들의 정치 이력을 쌓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장난같아 보이는 위의 이야기는



박성근 목사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실화입니다. 실제로 이 아이들이 장차 대통령에 출마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그것을 위해 지금부터 자녀들에게 꿈을 각인시켜 준다는 사실이 경이롭지 않습니까?

한국 부모들만 자식들에 대해 광적인 줄 알았더니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앞날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건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심어 주어야 자식의 앞날에 가장 큰 축복

이 될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가 있는 듯 합니다.

단순히 일류 대학에 보내고, 밤낮 학원에서 살게 해야 자식 농사 잘한 것일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른 가치, 바른 비전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길, 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22:1, 6).

세상이 점점 더 혼탁해져 갑니다.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그 나라 비전을 심어주지 않으면 어디로 떠 내려갈지 모릅니다. 방학과 선교의 계절을 맞아 자녀들에게 신앙의 뿌리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살람!

뉴(New) 할아버지



김성민 목사
팰리세이드교회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을 작년까지만 해도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 사랑하는 딸과 사위로부터 일방적인 전화 통보를 받았다. 올해가 다 가기 전 내가 할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그 소식이 좋고 고마워 딸 부부에게 축하를 전했지만 전화를 끊고 난 후 나는 한동안 멍한 상태로 있었다. 그 이유는 할아버지가 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손주가 태어나서 자라며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를 것이고, 할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을 것이며, 나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텐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아직 손주에게까지 좋은 교훈을 남길 수 있을 만한 할아버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많이 급해졌다. 손주가 태어나기 전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알았다. 특별히 목회 사역에는 열심을 내는 것 같았으나 정작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의 나를 돌아볼 때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손주가 자랑할 만한 믿음의 할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변화 받은 성품의 할아버지, 늘 진실한 할아버지, 가정을 사랑으로 잘 돌보는 할아버지,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할아버지, 교회에서도

는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나지 못한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부끄러운 생각도 갖게 된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 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디모데전서 4장 15-16절)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늘 자라가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을 통하여 가까이에서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멀리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오래 믿었다면 그만큼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알만한 직분을 얻었다면 그만큼 더욱 성숙한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과연 나는 가정, 교회, 그리고 일터에서 그러한 성숙한 성도의 평판을 받고 있는가? 나의 손주가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름표만 성도요 말로만 교훈은 남기고 있지는 않은가?

손주가 태어나기 얼마 안 남은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 생각하니 한숨이 먼저 나온다. 하지만 뉴(New) 할아버지가 되는 일이 정말 기대된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과부의 헌금에 대한 칭찬의 의미

누가복음 21:1-4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누가복음 21:1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계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렵돈 넣는 것을 보시고 3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을 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들은 자기의 부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 돈 주머니를 왼손으로 추켜들고 오른손을 주머니 안에 넣고 휘휘 저으면서 돈이 많이 있음을 과시하고 그 중에 얼마를 집어 연보계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 틈새에서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금화도 은전도 아닌 동전, 구리로 만든 단위가 가장 낮은 돈 두 렵돈을 넣었습니다.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진 것의 전부를 넣은 것입니다. 그것도 참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아주 다소곳하게 얼굴 들기도 어려워 민망해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아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 과부는 가치 단위로 생각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보잘 것 없고 작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헌금 가치의 기준이 금액의 단위에 있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그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과부가 과거 어떤 생활을 해왔고 지금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이 가난한 과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신 것을 보아 이 과부는 지금까지 살아오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고, 이제부터는 아무 것도 없지만 굶어 죽을지에 대한 걱정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책임져주실 것이라는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부는 남은 생활비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을 때도 그 선물이 얼마나 비싸고 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선물 속에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스며들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처럼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 기준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극정성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에 보이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그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것과,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자기 가진 것의 전부를 드린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과부의 믿음의 정성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많이 드린 것으로 평가되신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 델라스 지역으로 선교를 갔을 때 초대받아 간 곳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나를 초대해 주신 목사님은 하루에 2천불 이상을 버신다고 합니다. 한 달에 20일 정도 일을 하면 4만 불을 버는 셈입니다. 이 목사님 내외가 수십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두 분에서 이백 불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외는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때는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어디 잘 만한 처소도 구하지 못해서 그곳 예배당 긴 의자에서 잠을 자고 교회 화장실에서 씻으며 기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에게 감동이 오기를 본문 말씀인 '가난한 과부의 두 렵돈'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그 과부는 모든 것을 드리고 굶어 죽었을까? 아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책임지시고 좋은 조건으로 살게 해주신 것이 아니겠는가?'란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에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미국에 와서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부인이 남편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의논했다니 남편은 부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려서 그 사람의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설교가 생각이 났다면서 가진 돈 이백 불을 전부 감사헌금으로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백 불은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이 각자의 이름으로 백 불씩 헌금을 하니 교회에서는 많은 돈을 가지고 이민 온 사람들로 알고 교회 장로님들이 이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 사냐고 물으니 교회에서 산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대단해서 아버지 집을 떠날 줄 모르는 사람들로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심방을 한 번 가보고 싶다고 하니 "저희들은 집이 없습니다. 이민을 때 가지고 온 것도 없어서 아버지 집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했더니 금세 인상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있으면 안될 것 같은 그 표정을 보고는 다음 날부터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또 밤을 맞이합니다. 결국 갈 곳이 없어 다

시 그 교회로 갔는데 다행히 문이 잠겨있지 않아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룻밤 쉼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한 신발 수리하는 가게에 들어가서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며 서투른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가게 주인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사정이 딱해서 함께 일하자고 하며 한 달에 돈 칠백 불을 주었는데 그 당시 방세는 천 이백 불을 줬어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교회에서 기거할 생각을 했습니다. 부인은 부인대로 한국인 식당에 가서 일해주고 사백 불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항상 일을 하면서 찬양을 했고 일에 열심을 다하니 4년이 지난 뒤에는 일류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다른 곳으로 돈을 벌러 가야하니 이 가게를 맡아 운영하고 한 달에 얼마씩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일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수행했던지 한 달에 4일 정도만 일하면 보내줄 돈은 다 마련되고 나머지는 모두 그 집사님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직원들도 둘 정도로 가게가 번창해지자 부인이 신학교를 가야할 때가 되었다고 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에 뜻을 두지 않고 세계선교를 위해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재물들을 사용하면서 남미 여러 나라, 멕시코 등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인 추경회를 만들고 그곳에 운영자금으로 매년 11만불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구입한 집이라고 하며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기대하시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돈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이라고 가지고 돈에 연연해하는 모습을 보일 때면 하나님도 인색해지셨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은혜만을 믿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모두 드렸더니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얘기도 덧붙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과소비와 사치를 일삼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인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해야 물질은 막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임하실 것이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새로워지는 만큼 더 많은 물질의 밀착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적으로 물질을 사용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기대는 떨어지고 말 것이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뜻에 달린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행동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조건으로 살리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신에게 후하게 살다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어리석음에 머물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두 렵돈으로 가장 많이 드린 정성이라는 예수님의 평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요일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동부 오후 9시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국 신문 설교		AM131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FM91.5(SCA) AM1650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LA 미주 기독교방송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7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4(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8,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학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학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업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회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6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미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 (213) 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불순,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일수도 예약 필수)

CD PRINTING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선교 찬양 단원 모집
 • 단장 : 1명 • 기타 : 1명
 • 단원 : 12명 • 키보드 : 1명
 * 40~50대 남녀
 * 찬양선교에 관심있거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
문의 : T.(213)800-5205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회비 : 월 \$10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 213.392.2323

인하소반주 각종 김치
626-731-7864 (\$40이상 주문시) 무료배달
 갈비만두, 매운갈비만두 (40개 \$20)
 김치교자, 부추교자 (50개 \$20) 왕만두, 팔짚빵 (10개 \$10)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 발가락 {손목, 발목 질환} 손목, 발목 질환
 ✓ 마디관절 *지속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를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u stylist mystylist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 한함. *헤어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신간 도서

십자가를 경험하라

김남준 | 생명의말씀사 | 256쪽

끊임없는 열정과 감격으로 성화의 길을 걸으며, 교회가 무감각에서 빠져나와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한 싸움에 헌신케 하는 힘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



행복을 풀다

모 가넷 | 강주현 역 | 한국경제신문 | 484쪽

행복에 대한 여러 허상을 파헤치며, 행복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 준다. 세계적 공학자이자 구글X 사업개발총책임자인 저자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심리적 고통의 근원적 이유를 파헤치는 동시에 항구적 행복과 지속적 만족을 얻기 위한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한다.



복음으로 변화되라

오성한 | 베다니 | 292쪽

20년 이상 많이 기도하려 애썼고, 성경과 독서도 열심히 했으며,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싶었던 저자는 이 모두가 잘 되지 않았고,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성품과 삶이 부끄러울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복음'에 눈을 열었고, 신앙과 목회가 180도 바뀌게 된다.



추천 도서

초대교회의 역동적 생명력 당시 예배모임 통해 엿보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VR 영상처럼 바라본 초대교회



로버트 뱅크스 신현기 역 IVP | 80쪽

이 책은 마치 VR 영상을 보는 듯하다. 책의 내용은 한 관심자가 초대교회의 가정교회를 방문해 그곳의 예배모임을 찾아가서 끝나고 돌아오는 이야기다. 이 속엔 특별한 사건도 없다. 그 모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도 특별히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이 책은 그 모임의 구성구석을 독자들이 살펴보고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쩌면 독자들은 당황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모습이 어떻다는 건지? 굳이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지? 하고 당혹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가 로버트 뱅크스라면 달라진다. <바울의 공동체 사상>과 <교회, 또 하나의 가족> 등을 통해 초대교회에 대한 연구와 그것을 현대의 가정교회현으로 이끌어내는 데 노력하는 저자를 생각한다면, 이 책이 얇고 평범해 보이지만 읽어 나갈수록 그리 녹록치 않은 책임을 깨닫게 된다.

이 책을 조심히 들여다 보면, 로버트 뱅크스는 바울서신 속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편린들을 모아 재구성해 낸다. 일차적으로 뱅크스는 우리가 상상하곤 하던 초대교회의 모습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 그 조각들을 통해 2차원적 그림에 3차원적 상상력과 4DX 같은 감각을 느끼게 한다. 이것을 통해 초대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한 저자는 바울서신 곳곳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여러가지 모습과 이슈를 녹여 담아낸다. 지금의 성찬식과는 달리 자유로운 모습을 담아내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인에 의해 해방된 종들과 거둬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더 이상 계급이나 인종,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은사 문제의 논쟁과 가르침을 열망 그리기도 하고, 구도자에 대해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모임이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더구나 이 책은 성도의 시각이 아니라, 이 모임에 초대받은 관심자인 푸블리오스의 시각을 통해 초대교회를 최대한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화시켜 담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즉 저자는 독자들조차 비신자였던 푸블리오스처럼 3자적 입장에서 관찰하여 스

로 깨달아가도록 돕는다.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일방적이거나 권위적인 가르침의 전달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고 체험해가도록 한다. 특히나 이 책은 현대 교회가 전통이고 성경적이라 믿는 예배의 형식과 초대교회의 예배는 상당히 다를 수 있음을 독자들에게 시사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공동체의 새로움을 꿈꾸는 이들이 바울 서신을 뒤져 가며 서로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상당한 유익을 줄 좋은 책이다.

이렇게 이 책이 상당히 유익하고 도전적인 책이긴 하지만 지면상의 한계와 저자의 의도성으로 인해 글자 그대로 초대교회의 예배의 한 장면만을 담아내는 한계성과 함께 시대적 맥과 환경의 차이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먼저 초대교회의 한 장면만을 담았다는 것은, 로버트 뱅크스가 꿈꾸는 가정교회의 모습처럼 내적 친밀도는 강조되지만, 사도행전 전반에서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령 하나님의 강한 간섭은 외면하는 듯 싶다.

이 책에서 교회는 인종, 계급, 성별의 차이까지 극복하는 보이지 않는 혁명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고 구도자에게도 열린 공동체의 모습도 보이지만, 초대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역동성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듯 비취지는 것은 단순히 책 분량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저자가 갖고 있는 교회론의 강조성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다.

물론 사도행전 전반부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부흥과 역동성은 초대교회의 초기적 특이성으로 볼 수도 있기에, 저자가 굳이 다루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한 책은 1세기 교회 이야기란 이름으로 현대교회와의 시대적 갭을 이미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예식이나 제도에 대한 자유로움에 비해 현대교회의 예식의 정형화를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초대교회가 형식에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바울서신에서도 나타나듯 초대교회도 점차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가르고 원칙을 정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또 저자는 마치 초대교회가 리더는 있지만 상당히 개방적이고 비주도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처럼 표현한다. 하지만 유두고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바울 같은 설교자가 초대교회에도 있었음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또 권면과 치리, 양육과 가르침이 있었음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본다면, 저자의 초대교회 묘사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일 수 있다. 물론 얇은 책이기도 하고 어떤 논리를 학문적으로 기술하려는 의도가 없는 책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무리수일 수도 있겠다.

이 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쉬움일 뿐이다. 설혹 내가 거론한 문제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더라도, 이 책은 유익하고 같이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이 책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성경 본문을 찾아보며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모든 책이 다 그렇겠지만, 이 책은 읽고 토론하는 것으로 그칠 책이 아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직접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며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 한 예로, 한 때 가정교회에 대한 시도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적용한 것도 드물었고 또 그 적용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문제점을 유발한 것도 그런 연유이다.

많은 교회의 가정교회 변화 실패는 가정교회를 제도와 프로그램으로 적용하려 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니다. 가정교회는 어느 것보다 유형적 공동체를 넘어 유기적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그럴 때 진정한 초대교회처럼 교회는 다시 역동적인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문양호 목사(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농장, 기도원, 고급주택

- 71만불의 가치--- 단 41만불
고급주택 3Bedroom, 3 Bathroom
매달 3,000불의 매실 수익
우울 7만불의 가치 2개 있음
큰 도로 옆에 있어 편리함
유명한 구름이 머무는 곳 근처
제주도 날씨와 같아 한국에서 나는 과일,야채 100%재배 가능

연락처 : T.(213)298-8384 James Nam
주소 : 1232 Westchester Pl, Los Angeles, CA 90019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주소: GBMW (체코모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영혼의 진주를 사세요

| 소강석 지음 |



320면 / 13,000원

예수 마니아가 되라

| 소강석 지음 |



320면 / 13,000원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골드**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환자, 반드시 아연 섭취해야!

프로지 골드

PRO-Z GOLD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공팔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골드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 골드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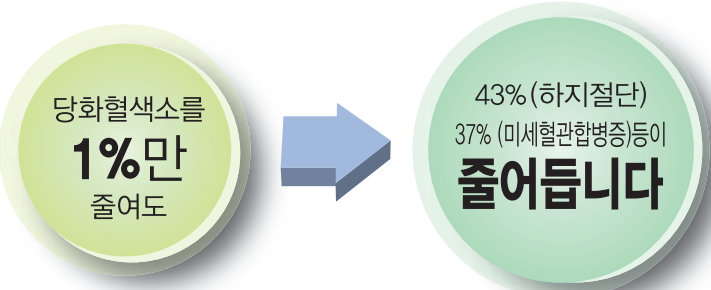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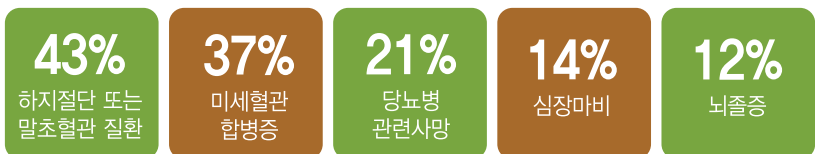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대학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0+Tax
3병 \$170+Tax
6병 \$33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텔레마케터 모집
문의 : 949-864-9162